

**전일동향**

전일대비 13.20원 상승한 1,545.20원에 마감

29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.50원 상승한 1536.5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8조원 이상 대규모 주식 매도에 상승하며 전일대비 13.20원 상승한 1,545.2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0.6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54.08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(06:0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536.50	1545.70	1535.10	1545.20	1541.50
엔화	947.00	955.31	946.10	954.08	-	
유로화	1744.02	1766.01	1743.11	1764.82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0	-2.06	-6.64
결제환율(수입)	0	-1.04	-4.56	-11.88

\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
\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**금일 전망**

반기 말 네고 물량에...1,53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7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545.20) 대비 4.15원 하락한 1,540.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-이란 간 추가 협상을 앞둔 중동 긴장감 완화와 반기 말 네고 물량에 하락 전망한다.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공격을 중단하고 오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. 이 소식에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, 뉴욕증시에서 그간 부진했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. 이 점이 금일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 또한,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날인 만큼 수급 요인이 환율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, 특히 최근 수출업체 호실적과 중공업체 수주 실적이 네고 물량 출회를 뒷받침할 수 있고, 환율 레벨 단기간 급등에 따른 당국의 경계감도 환율 하락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.

다만,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환율 상방 압력 받을 수 있고, 수입업체 결제 수요와 거주자 해외 주식 투자 확대는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.

<b>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</b>	<b>1533.67 ~ 1547.00 원</b>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b>체크포인트</b>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77331.74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.15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52182.74, +306.63p(+0.59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16.99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979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